

[별지 제6호 서식] (제20조 제2항 관련)

심의 의결서

☐ 의안명 : 호남고속철도 2단계(고막원~목포) 건설사업 노반설계 교량경관
(국도1호선 통과구간)경관심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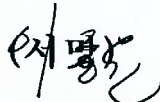
☐ 심의의결

	(원안) 채택	조건부채택	재심의	반려	비 고
출석위원 5명 중	5명	명	명	명	
심의의결	0				해당란에 "O"

☐ 기타사항 :

☐ 회의록 공개여부 : 공개/비공개(비공개시 사유)

한국철도시설공단 경관심의소위원회

위원장 : 이 종 윤 

[별지 제5호 서식] (제22조 제2항 관련) (개정 2013.1.23)

위원별 심의 의결서

☐ 의안명 : 호남고속철도 2단계(고막원~목포) 건설사업 노반설계 교량분야
(국도1호선 통과구간) 경관심의

☐ 심의의견

(해당란에 “○”)

안건명	(원안) 채택	조건부 채택	재심의	반려
호남고속철도 2단계 (고막원~목포) 건설사업 노반설계 경관심의 - 국도1호선 통과구간	○			

◦ 사유 :

한국철도시설공단 「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」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19년 12월 2일

성명 : 정대승^(서명)

한국철도시설공단 경관심의소위원회 위원장 귀하

[별지 제5호 서식] (제22조 제2항 관련) (개정 2013.1.23)

위원별 심의 의결서

□ 의안명 : 호남고속철도 2단계(고막원~목포) 건설사업 노반설계 교량분야
(국도1호선 통과구간) 경관심의

□ 심의의견

(해당란에 “○”)

안건명	(원안) 채택	조건부 채택	재심의	반려
호남고속철도 2단계 (고막원~목포) 건설사업 노반설계 경관심의 - 국도1호선 통과구간	○			

◦ 사유 : 경관심의의 노후된 라인이 국영도로로 보일것을 방지

한국철도시설공단 「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」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19년 12월 2일

성명 : 이 상 화 (인)

한국철도시설공단 경관심의소위원회 위원장 귀하

[별지 제5호 서식] (제22조 제2항 관련) (개정 2013.1.23)

위원별 심의 의결서

□ 의안명 : 호남고속철도 2단계(고막원~목포) 건설사업 노반설계 교량분야
(국도1호선 통과구간) 경관심의

□ 심의의견

(해당란에 “○”)

안건명	(원안) 채택	조건부 채택	재심의	반려
호남고속철도 2단계 (고막원~목포) 건설사업 노반설계 경관심의 - 국도1호선 통과구간	○			

◦ 사유 : . 단차폭 마감 처리에 관한 대안 마련 있음.

한국철도시설공단 「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」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19년 12월 2일

성명 : 유병현 (서명)

한국철도시설공단 경관심의소위원회 위원장 귀하

[별지 제5호 서식] (제22조 제2항 관련) (개정 2013.1.23)

위원별 심의 의결서

□ 의안명 : 호남고속철도 2단계(고막원~목포) 건설사업 노반설계 교량분야
(국도1호선 통과구간) 경관심의

□ 심의의견

(해당란에 “○”)

안건명	(원안) 채택	조건부 채택	재심의	반려
호남고속철도 2단계 (고막원~목포) 건설사업 노반설계 경관심의 - 국도1호선 통과구간	○			

◦ 사 유 : 이안상 반영함위해 하부지 검토결과 이안자리 채택함으로
이러한 사실 반영함.

한국철도시설공단 「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」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19년 12월 2일

성명 : 김재웅 (인)

한국철도시설공단 경관심의소위원회 위원장 귀하

[별지 제5호 서식] (제22조 제2항 관련) (개정 2013.1.23)

위원별 심의 의결서

□ 의안명 : 호남고속철도 2단계(고막원~목포) 건설사업 노반설계 교량분야
(국도1호선 통과구간) 경관심의

□ 심의의견

(해당란에 “○”)

안건명	(원안) 채택	조건부 채택	재심의	반려
호남고속철도 2단계 (고막원~목포) 건설사업 노반설계 경관심의 - 국도1호선 통과구간	○			

◦ 사유 :

한국철도시설공단 「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」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19년 12월 2일

성명 :  (김경모)

한국철도시설공단 경관심의회소위원회 위원장 귀하